**원삼국 시대**

*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서 부여, 고구려, 삼한(마한, 진한, 변한), 동예, 옥저등의 나라가 세워졌다.

**부여(夫餘)**

* 기원전 2세기경 세워졌으며 1세기경부터 만주의 송화강유역의 평지를 중심으로 성장했다.
* 49년 중국식 왕호를 쓰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며 사신을 보냈다.
* 285년 선비족의 침략으로 쇠퇴했고 494년 고구려의 문자왕에 의해 편입됐다.
* 왕 아래에는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, 우가, 저가, 구가와 대사자, 사자등을 뒀다.
* 4가는 각기 행정구역인 사출도(四出道)를 다스리며 왕이 다스리는 중앙과 합쳐 5부를 편성했다.
* 대가(大加)들은 왕을 제가회의에서 뽑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 흉년이 들면 왕을 사형시키기도 했다.
* 농경과 목축이 주된 산업이었고 말, 모피등이 유명했다.
* 영고(迎鼓)라는 제천행사가 12월에 열렸음.
* 왕이 죽으면 노비를 같이 묻는 순장이 있었음.
* 4대금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지고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.
2. 물건을 훔쳤을 땐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한다.
3.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자는 사형에 처한다.

.